

정읍귀리, 6차 산업으로 날개 달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재배농가·홍보·마케팅·가공시설 구축으로 2013년 대비 매출액 158% 신장

정읍귀리가 6차산업을 통해 귀리재배농가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귀리 가공시설 구축으로 매출액 158% 신장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귀리는 전국 최초로 식용귀리 재배지로 2005년도 시험재배를 시작한 이래 2016년 말 기준 101개 농가가 320ha에서 연간 920톤을 수확해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소득 특산품으로 성장했다.

이와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6차산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확연히 나타났다.

사업시작년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귀리 재배면적은 139%(230→320ha), 참여농가는 158%(64→101명),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 매출액도 158%(20→33억원) 대폭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유통·홍보사업을 통해 기존 유통망 확대(아이쿱생협,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 주력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에 '명품 정읍귀리'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농업소득 정책 및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농가, 향토기업이 한마음으로 똬똬 뭉쳐 자

생적 역량강화를 한다면 '농업 농촌'에도 돌파구는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정읍귀리 6차산업은 한발 더 나아가 지역소상공인(공사당, 산들영농조합, 제과협회, 가은누리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귀리 쌀 뿐만 아닌 다양한 가공상품(오트밀, 선식, 귀리잡쌀, 귀리쿠키, 귀리빵 등)을 개발, 판매해 지속적인 매출성장으로 지역발전의 앞장서고 있다.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 손주호 대표는 "귀리, 전국 1번지 정읍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6차산업의 성과였다"며, "향후 지역주민참여 확대를 위

한 우수종자 보급, 전문재배기술교육 및 상품 다각화를 통한 매출신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핵심 정책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사는 농촌' 삼락농정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삼락농정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의 부가 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농촌에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6차산업의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송하진, 공직자 선거중립·공직자강 확립 주문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탄핵결정에 따라 차질 없는 도정을 위해 공직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공직자강 확립을 주문했다.

먼저,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결정 후 행자부에서 시달린 국정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에 대해 도 및 시군의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숙지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SNS를 통해 주요 후보자에 대해 댓글 지지표명 금지 등에 유의하는 등 공직자 선거중립 자세를 확립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탄핵결정 이후 혼란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한 공직자강 확립도 강조했다.

송 지사는 대선정국 전개에 따라 전북도가 발굴한 대선공약과제 다수가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내 정당, 국회의원, 후보캠프, 언론 등을 활용 공약수용성을 제고하고, 2018년 국가예산 사업화와 부처 설명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도에서는 대선공약과제로 발굴한 8개분야 47개 과제에 대해 그동안 각 정당, 주요 대선후보에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한편, 핵심분야 언론 브리핑과 주요과제에 대한 고도화 운영을 추진해 왔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AI 차단방역 총력

최근 AI H5N8형이 계열사 닭 직영농장 및 오리 위탁농가에서 추가 발생됨에 따라 전북도는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가금 계열회사와 차단 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AI 발생상황을 보고 받고 AI 추가 발생에 대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전북도는 AI의 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유관기관·농가·계열사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금 사육농가의 철저한 출입 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와 AI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는 13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가금 계열회사와 AI 차단 방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AI 발생상황을 보고 받고 AI 추가 발생에 대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도,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3곳 선정

국비 15억 확보

전북도는 농식품부가 공모한 '2017년 발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서 3개소가 선정돼 국비 15억을 확보했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농식품부가 발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경영체(법인)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총 사업비 10억원이며 보조율은 90%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에 4개 경영체를

선발해 응모한 결과 전국 10개소 중 전주미나리와 정읍귀리, 무주 등 3개소가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영체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350명 이상의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응모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삼락농정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천하·화인특장, 김제 백구특장차단지 입주 협약

전북도와 김제시는 13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이진식 김제시장, 전태성 전북도 투자유치과장, 정호영 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하, 화인특장과 김제 백구특장차단지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천하)는 지난 2000년에 익산에 설립된 특장차 제조 및 사다리차 A/S 전문기업으로 품질 및 안정성, 사후 관리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구축하며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화인)특장은 환경차량, 농촌차량, 건설차량을 생산하는 업체로 품질의 우수성과 고객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경제성, 편리성, 내구성, 사후관리 및 패션감각에까지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신차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투어패스' 보물찾기 특별이벤트 개최

보물을 찾은 관광객에게 전북투어패스카드와 관광기념품 경품 증정

'전북도는 민선 6기 핵심 사업인 '전북투어패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숨어 있는 보물찾기 특별이벤트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일원에서 2시간 동안 개최한 보물찾기 이벤트는 국내외 관광객이 꼭꼭 숨어 있는 100개의 보물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번 이벤트는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인 경기전 앞 광장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는 프로모션으로, 관광객이 2017 전북방문의 해 전북투어패스로 즐기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긴 쪽지를 찾아, 인증샷과 함께 홍보 부스에 제시하면 전북투어패스 카드 2매를 선물로 받았다.

또한 5개의 보물장소에는 일반 보물과는 달리 '추가 경품'이라는 단어가 기재된 보물이 숨겨져 있어, 이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전북관광기념품 100선 중 일부를 추가 경품으로 제공했다.

한편,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해 큰 호평을 받은 한편,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관심도 높였다.

이날, 보물찾기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SNS 특별 이벤트 행사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전북투어패스 자유이용시설 또는 특별할인가맹점 3개소 이상을 방문 후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친구추가와 함께 게재하면, 도에서 선착순으로 50명을 선발해 전북투어

패스 모바일권(바코드/1일권) 2매를 증정하는 사진 홍보도 병행 시행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전북투어패스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은·오프라인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물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전북투어패스의 인지도 확대를 위해 도의 대학생 및 파워블로거 캠퍼 등 다채로운 특별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물찾기 행사는 JTV 전주방송에서 전북투어패스 특별이벤트 행사를 촬영해 4월 10일 '유레카'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양호'

어린이집 2곳 총부유세균 부적합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2016년 도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결과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도 생활환경경과 합동으로 2016년 다중이용시설 72개소에 대하여 포름알데하이드 등 5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70개소가 적합판정을 받아 97%의 적합률을 보였다.

점검시설별로는 어린이집 37개소,

의료기관 17개소, 노인요양시설 10개소 등 사회민감시설 위주로 점검했으며 이 중 어린이집 2개소가 총부유세균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는 실내공기질 대상수가 746개소로 이 중 10% 정도인 76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도점검을 방향을 일부 수정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나 극장, 대형병원 등으로 확대해 실내공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